‘국민화합’ 태고종 영산재, 종로를 수놓다

태고종, 9월 7일 영산재 봉행
종로 서울공예博 공예마당서
정관계 인사 등 500명 참석
“국민화합 문화 물길이 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9월 7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무대에서 ‘동행 · 매력 시민과 함께하는 2024 태고종 영산재’를 봉행했다.

국민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가 서울 종로에서 펼쳐졌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7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무대에서 ‘동행·매력 시민과 함께하는 2024 태고종 영산재’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영산재는 올해로 3회를 맞았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설행 장소를 기존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공예박물관으로 옮겨 설행됐다.

영산재는 오후 1시 30분 부처님과 신중들을 모시는 시련(侍輦) 의식으로 시작됐다. 영산재보존회 회원들이 각종 번과 연을 들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출발해 송현녹지광장을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무대까지 이운했다.

이어 영산재는 산중작법-천수바라-도량게-법고-거불-축원- 향수나열-향화게-가지게-축원화청으로 진행됐다.

앞서, 개막식에는 국민화합을 위한 영산재를 축하하기 위한 내외빈들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영산재는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가운데 불교 무형문화예술의 백미를 이루는 수준 높은 전통의례”라며 “이번 2024 태고종 영산재 개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잇는 이념과 세대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과 국민화합, 세계적 화합을 향한 문화의 물길이 트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영산재보존회장 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회 주제인 ‘동행·매력’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즐거움과 영감을 선사하고 ‘동행·매력’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봉행되는 영산재를 마중물로 신구세대가 함께 숨쉬고 공감하는 전통문화유산의 장이 널리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으며, 호법원장 혜일 스님도 “동행·매력,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영산재를 통해 생명존중 정신이 널리 고양되기 바란다”고 서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백미, 영산재가 민족의 축제로 가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영산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영산재와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문화행사도 서울공예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체험·전시프로그램으로는 가사·장삼 전시, 석용 스님 지화 전시, 연꽃만들기 체험 등의 부스가 운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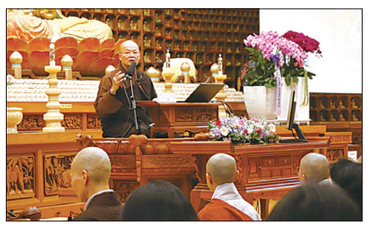
영산재 설행 이후에는 문화예술공연행사가 진행됐다. 행사는 봉원사관음합장단·백련사불음합창단·청련사심향합창단·용궁사해조음합창단으로 구성된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공연과 불자가수 박희진·신지혜·조재우, 장하은 기타리스트, 풍물밴드 이상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한편, 태고종은 영산재에 앞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일원에서 태고종의 근현대사 면면을 담아낸 ‘한국불교역사문화사진전’을 개막했다. 사진전은 9월 11일까지 전승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사진전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와 문화의 자취를 살피고, 종단스님들의 행적과 수행 정진, 부국안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 있는 사진을 담았다”며 “민족 종교로서 불교가 걸어왔던 보살행을 되돌아보며 우리 불교의 문화적 물줄기를 설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美위앙종 영화 스님, ‘선정쌍수’ 방한 법회

9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선 · 정토 닦는 ‘선정쌍수’
관음칠 및 경전 강설도


지난 3월 방한한 미국 위앙종 영화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위앙종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영화 스님이 한국에서 한 달간 방한 법회를 연다.

미국 영화 스님이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청주 보산사, 서울 탄허박물관, 전국비구니회관, 길상사 등에서 선과 정토를 함께 수행하는 ‘선정쌍수’의 정수를 한국의 수행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방한한다.

첫 법회는 9월 29일 청주 보산사에서 ‘관음칠(觀音七)’ 수행으로 법석의 막이 오른다. 관음칠은 7일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및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불하는 집중 수행 기간을 의미한다. 영화 스님은 매일 저녁 법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수행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선 수행자를 위한 법회와 경전 강설 시간도 마련된다. 10월 12일과 19일, 서울 탄허박물관에서 그룹 좌선 및 선 명상을 주제로 한 ‘다르마톡’과 12일에는 화엄경, 19일은 유마경 강설이 진행된다.

10월 13일에는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선명상의 기초를 시작으로 〈아미타경〉 독송 및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정토법회와 영화 스님의 ‘정토왕생과 염불’ 법문이 이어진다.

마지막 법회는 10월 20일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에서 영화 스님의 ‘미국 위앙종의 정수’ 법문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영화 스님은 지난 20년간 미국,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곳곳의 수행자들에게 선정쌍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봉녕사, 사찰음식 축제 한마당 연다

10월 4~5일, 수원 봉녕사서
‘사찰 자연발효음식’ 주제로

봉녕사가 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연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0월 4~5일 경내에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2024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발효음식을 향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찰의 자연발효음식’을 주제로 열려 눈길을 끈다.

4일 첫날에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를 시작으로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어 육법공양, 성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차명상, 탁발순례, 무아차회 등 사찰음식이 가진 불교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둘째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야외무대에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고 비천무, 우담화합창단 공연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경내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에서는 ‘사찰음식 특강’이 개설돼 기대를 모은다. 특강은 10월 4~5일 양일간 하루 6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김민재 기자

다양한 명상 만나보려면 ‘동국대’로 오세요

동국대, 제5회 국제명상엑스포
9월 24~26일 서울캠퍼스 일원
한의학 · 오일 · 죽음 체험 등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 선봬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펼쳐질 20개의 명상 체험 부스가 대중에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1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진행될 명상 체험 부스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명상엑스포는 종학연구소가 주최하며 9월 24~2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명상 체험 부스는 총 20개로, 9월 24~25일 양일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주목할 만한 부스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아로마 향기로 치유하는 ‘아로마 명상오일 DIY’가 있다. 아로마 오일을 시향하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 오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의학과 명상이 결합된 부스도 마련됐다. ‘전통한의학과 명상’은 호흡 관련 혈자리에 침을 놓아 명상 수행을 돕고 뇌파검사를 실시해 명상의 효과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뇌파검사, 침 시술 또는 단전호흡 시행, 뇌파검사, 검사 결과 설명으로 진행된다.

죽음을 인지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는 ‘메멘토 모리: 죽음 체험 명상’도 눈길을 끈다. 입관 체험 및 백골관 명상을 통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산란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타 부스와 달리 체험하는 동안 상시 상담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명상 관련 기기를 직접 체험하는 ‘명상 첨단 테크기기’, 불교 사경(寫經) 수행 원리를 차용한 ‘명상 캘리그라피(손글씨 명상)’, 꽃잎으로 만다라를 그리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나를 만나는 꽃 만다라 체험’ 등 다채로운 명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명상엑스포) 1회부터 3회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위주로 진행했지만, 작년부터는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들로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방문해, 명상엑스포를 충분히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이번엔 40대다! ‘나는 절로’ 6기 모집

화계사서 10월 5~6일 개최
40대 미혼남녀 누구나 환영

범국가적 관심을 받으며 인연맛집으로 등극한 ‘나는 절로’가 오는 10월, 40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10월 5~6일 양일간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에서 ‘나는 절로, 화계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이전과는 달리 미혼의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나는 절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한국사회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긍정적 결혼관 형성 교육,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10쌍, 총 2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화계사 참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 연애 특강, 레크레이션, 1:1 로테이션 차담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서울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사찰 화계사에서 40대 특집 ‘나는 절로’를 준비하게 됐다”며 “40대를 위한 40번째 만남 템플스테이(나는 절로 6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나는 절로, 화계사’는 참여를 바라는 40대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9월 20일 오후 1시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접수 받는다.

한편, 서울 화계사는 서울 강북 포교 중심 도량으로 불자와 지역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김가령 기자

종평위 “홍주·해미읍성, 카톨릭 성지화 유감”

9월 5일 홍주 · 해미읍성 현장답사
官주도 가톨릭 성역화 진행 확인
“지역불교사 재조명” 공감대 형성


조계종 종평위는 9월 5일 ‘제4차 회의 및 홍주읍성 · 해미읍성 현장답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가 홍성군 홍주읍성과 서산 해미읍성에서 이뤄지는 특정종교 편향적 행정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종평위는 9월 5일 ‘제4차 회의 및 홍주읍성·해미읍성 현장답사’를 개최하고 현장에 남은 사찰 유적·유물 등을 확인했다. 현장답사에는 종평위원장 향문 스님, 종평위원 도심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포교부장 남전 스님, 법륜 스님, 금해 스님, 이병두·이종수 위원을 비롯해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 스님과 홍성지역 스님들, 서산주지협의회장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과 회원스님들이 동참했다.

종평위원들은 홍성 홍주읍성 복원 현장에서 과거 일대에 규모 있는 사찰이 소재했음을 확인했다. 홍주성벽부터 외곽지까지 1km 범위에 분포한 고려시대 사찰 석재와 석탑 기단부를 비롯해 석탑의 몸돌, 불상의 연화좌, 오관리 당간지주 등은 읍성 일대가 사찰지였음을 보여준다.

이어 홍주읍성에 구성된 6개 순례길 코스를 방문하고 순교기념비와 박해사 위주로 기술된 안내판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정종교 성지화를 종교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은 “‘홍성 천년여행’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홍주읍성에 산재한 불교유물들을 방치하고 특정종교 성지화를 진행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며 “전문적인 사지(寺地) 연구를 통해 학술적인 지역 불교사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산 해미읍성에서 종평위원들은 읍성 내 순교기념비, 감옥터, 십자가의 길 조형문 설치 현장 등을 확인하고 특정종교 성지화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산주지협의회장 혜산 스님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제성지’ 사업을 서산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답사를 마친 뒤 종평위는 서산주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답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홍성군과 서산시 ‘관(官)’ 주도 사업이 ‘관광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형평성 없이 추진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종평위원들은 그동안 미진했던 내포지역 불교사 학술연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종평위는 올해 내로 홍성·서산 지역에서 불교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김가령 기자

강남불교대, 9월 입학생 모집

스님 · 스님 희망자 대상으로

적멸보궁 태황사 부설 강남불교대학(대표 군맹서진 스님)이 스님 또는 스님 희망자를 대상으로 9월 학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1, 2학기로 나눠진 강의는 매주 월·수·금 수업이 진행된다. 1학기는 9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불교 근본 교리와 사찰 예절을 배운다. 2학기는 2025년 3월 3일에 개강해 중국과 한국의 불교 역사를 공부한다. 입학금은 10만원이며 수업료는 한 학기당 50만원이다.

스님 희망자는 9월 학기 수료 후 면접에 통과해야 하며, 2025년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천 태황사에서 연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서품식은 동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봉행될 예정이다. 연수 비용은 승복과 장삼 비용을 포함, 총 100만원이다. 02-532-0012 김민재 기자